지식경제부 **보도참고자료**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신산업표준과 윤종구 과장(02-509-7294), 이상근 연구관(9295)

韓, OLED의 R&D-표준연계의 선행표준 성공사례
- OLED산업화와 글로벌시장 선점에 기여 -

□ 지식경제부 **기술표준원**(원장 서광현)은 포스트-LCD로 부리는 꿈의 디스플레이인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를 **R&D-표준연계의 선행표준 성공사례**로 발표하였다.

○ OLED의 R&D초기인 2002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(IEC TC 110)에서 작업반(WG)을 신설하고, 위원장 수임, 국제표준제안 등 지난 10년간 **국제표준화 선도**로 2007년 모바일폰에 2009년 스마트폰에 OLED산업화로 이어지며 **세계시장 창출**과 **선점**하고 있음

- 2000년대 초반, 평판디스플레이 글로벌시장에 대한 한일간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LCD, PDP 디스플레이 표준을 주도하던 일본을 제치고 **한국은 OLED 국제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음**

- **우리나라는 OLED의 저소비전력, 고화질, 내구성 등 우수성능 평가를 입증하는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** 세계 최초로 OLED제품 양산 뿐아니라, 세계시장*을 석권하였음

* 2011년 글로벌 AMOLED 시장 점유율 : 한국(98.3%), 일본(1.3%), 미국(0.4%)

□ AMOLED(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) '국제표준화'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, 지난 7월 19일 **"OLED 국제표준화 10주년 기념 워크숍"**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함

○ 이날 워크숍에서는 OLED 표준화 10년 활동 및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과 함께 과거, 현재, 미래에 대한 OLED의 시장 및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도 병행 개최되었음

- 특히, 이날 워크숍에서 **삼성디스플레이 김학선 전무는 'OLED의 현재와 미래**라는 주제로 OLED 산업의 현황점검과 미래 디스플레이에서의 투명 플렉시블 등 OLED의 역할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, 디스플레이 문대규 PD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'OLED조명 시장 및 기술 동향'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음

< 발표주제 >

* OLED 표준화 동향 : 이정노 센터장(전자부품연구원)
* OLED 현재와 미래 : 김학선 전무(삼성디스플레이)
* OLED 조명 시장 및 기술동향 : 문대규 교수(순천향대학교)

□ 한 편, 이 날 시상식에서는 일본 등 경쟁국의 극심한 견제속에서도 2002년부터 **OLED 국제표준화* 활동의 중심**에 서서, 한국이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표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이끌어 온 **서울대 이창희 교수**에게 협회장상이 수여되었음

○ 사실, 그 간 평판디스플레이의 표준화는 1995년도 IEC TC47(반도체)의 분과위원회인 SC47C에서 시작되어, 초기에는 일본이 LCD, PDP분야의 워킹(WG)그룹을 주도하고 있어, 한국의 위상은 보잘 것이 없었음

* IEC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 : 1906년 창설된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 기구
** TC(Technical Committee)110 : IEC내 전자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위원회
*** WG(Working Group) : 담당과제의 표준초안 개발을 위한 작업반

- 하지만, 지속적인 정부의 표준화 지원과 산업체 중심의 국제표준 제안 활동으로 현재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OLED 국제표준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

- 현재 한국은 OLED, 3D, e-페이퍼 ,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, 더 나아가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까지 확대해서 표준화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

* 국제표준 9종(제정완료 5, 제정추진 4) 중 한국은 5종 반영 추진(제정 3, 제정예정 2)

□ 이 날, 기술표준원 윤종구 과장은 **OLED 표준화 사업은 R&D 및 표준 연계의 선행표준 성공사례**로 타 핵심기술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, 향후에도 **'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'** 신념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키 위해 표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